

대구지역 회원사 수주환경 개선과 건설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



▲ 대구지역 회원사 수주환경 개선과 건설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대구광역시회 사무처 직원들(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창한 사무처장, 박선희 직원, 김진명 주임)

1. 회원사 현황

1) 연도별 등록업체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업체수	241	246	248	232

2) 구·군청별 등록업체 현황

구·군청	구분	업체수	등록수	업종별 등록수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공업
중 구		22	22	19	3
동 구		15	17	14	3
서 구		20	23	14	9
남 구		16	17	14	3
북 구		39	40	33	7
수성구		52	53	47	6
달서구		60	64	45	19
달성군		8	8	8	0
합 계		232	244	194	50

2. 대구광역사회에서 하는 일

1)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 ① IMF이후 대구광역시에는 지역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몰락으로 인한 외지 대형건설업체의 진출과 아파트 등 주택건설 경기에 의존하고 있음
- ② 이에 대구광역시에 전문을 비롯한 지역 설비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건의하여 「지역 건설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외지 대형건설업체들로 하여금 지역 전문업체 하도급 비율을 점차 증대시켜 나가고 있음
- ③ 일반·전문 간의 겸업 제한 폐지와 기계설비의 4년 유예 등 건설생산체제 개편에 대응하고 설비업계의 독자성 확보를 위해 대구지역 지방 자치단체 발주공사는 모두 분리발주토록 추진

2) 산학협력 추진

- ① 대구·경북지역 대학중 유일하게 개설된 대구공업대학 건축설비과와 산학협약 체결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관련 대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② 대구공업대학 건축설비과 재학생의 설비건설현장 실습을 1993년부터 추진하여 연인원 620명을 대상으로 실습 완료

3) 설비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 ① 우수한 설비건설 기술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대구공업대학 건축설비과 재학생들에게 1992년부터 매년 장학금 지급
- ② 장학사업 배출현황
 - △ 인원 : 총 32명
 - △ 금액 : 총 24,000,000원

4) 정부위탁 업무 수행

- ① 국토해양부로부터 설비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실적, 적격심사자료의 확정,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등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공정한 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② 매년 대구지역 220여개 업체 3천억원 규모의 기성실적, 약 700여명의 기술인력 및 정기결산서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 업무 수행

- ③ 인지기능사경력증 발급업무를 통해 지속적인 기능인력 양성으로 총 438명의 최종합격자 배출

5) 설비건설관련 담당자 초청 간담회 개최

- ①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담당자 초청 간담회 개최
매년 대구광역시청, 구·군청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담당자를 초청하여 지역건설산업 진흥 계획에 따른 등록업무, 주기적신고업무, 각종 신고 사항에 대한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건의
- ② 시설공사 계약업무 담당자 초청 간담회 개최
매년 대구광역시청, 구·군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담당자를 초청하여 설비공사 중요성과 분리발주 타당성을 홍보 및 시행 건의

6) 회원사 지원사업 추진

- ① 회원사 경영지원과 회원사 임·직원의 업무향상을 위한 각종 강습회 수시개최
- ② 건설계약관련, 건설공사 노무실무,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 실적신고 등의 교육을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

3. 대구광역시회 회원사의 공사 수주환경

1) 건설공사 기성실적 현황

2006년 전국 기성실적은 전년도 9조 4,065억원에서 10조 126억원으로 6.4% 증가했고 2007년 기성실적은 약 10조 8,04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대구지역 업체의 2006년 기성실적은 전년도 3,612억원에서 3,234억원으로 10.5% 감소하였으며, 2007년 기성실적은 약 3,1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평균 6~7% 성장에 비교할 때 대구지역은 국제유가 상승 및 원자재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면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최근 설비건설업 수주환경

건설시장개방에 의한 무한경쟁의 시기에 무리한 최저가 낙찰 및 덤핑수주로 인하여 설비건설업계 전체가 어려운 실정이며, 건설공사 인건비와 원자재가격 상승 및 4대 사회보험료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회원사의 수익구조가 불안하다.

또한 대구지역에는 IMF이후 경기 침체와 더불어 타지역 업체가 많이 진출해 지역업체는 일감 부족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3) 수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어려운 수주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참여와 외지 대형건설업체에 대해 지역 회원사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주요 발주기관에 기계설비 분리발주 시행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대구광역시회는 지역 회원사의 시공품질 향상과 신기술 도입 등 기술력 향상을 지원, 회원사 권익보호와 경영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수주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대구광역시의 주요 발주기관 현황 및 분리발주를 위한 노력

1) 주요 발주기관 현황

대구광역시, 구·군청, 대구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청, 대구도시공사, 대구지하철공사, 대한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 등이 있다.

2) 분리발주를 위한 노력

- ① 원도급공사 수주로 인한 공사 채산성을 확보하고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최우선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BTL사업 및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인해 분리발주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
- ② 주요 발주처에 분리발주의 근거 및 장점을 홍보, 적극 시행건의
- ③ 2005년 10월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청에서 발

주하는 기계설비공사는 분리발주 시행(신축, 증축포함)
 ④ 대구광역시청을 비롯한 주요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회원사와 긴밀히 협조해 분리발주 된 현장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 분리발주 된 설비공사가 하도급에 의한 공사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분리발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고사
성어

濟世安民(건질 제, 세상 세, 안정할 안, 백성 민)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히 함. 당태종의 이름 세민(世民)이 이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함.

당태종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道)로서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여 부역을 가볍게 하는 일이었다. 정관 연간의 초기 관중·관동(하남성 함곡관 이동의 땅) 지방은 3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딸과 아들을 파는 자가 많았다.

이 같은 백성들의 생활을 불쌍히 여긴 태종은 자연재해로 인한 백성들의 불안이 곧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판단, 국고에 보관 중인 식량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라는 조서를 내렸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일부 주현(州縣)에서는 이재민 가까호호에 기근이 지난 후에도 식량이 남을 수 있도록 충분히 급여하였다는 것이다.

또 태종은 황실 금고의 금은보화를 이재민들이 할 수 없이 판 딸이나 아들을 돌려받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딸이나 아들들을 그 집에까지 데려다 주어 한 집안이 단단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새로운 부역제도로써 조용조(租庸調)법을 시행했다. 조(租)는 구분전(口分田)에 과하는 세금, 용(庸)은 사람에게 대하여 과하는 노역 의무, 조(調)는 집에 관한 현물세이다.

물론 이러한 새 법령이 농민을 봉건 왕조의 착취나 억압으로부터 완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었지만 수양제의 극심한 착취, 억압에 비하면 훨씬 부담이 가벼운 것이었다.

수나라 말기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다가 정관 연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실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정관 3년(629) 호부(戶部)의 보고에 따르면 근자에 이르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변경 지대에서 돌아온 자와 새로 귀순해 온 자의 수가 1백 20만명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관 연간의 정치적 성과는 이밖에도 여러 방면에 미치고 있어 여기서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법으로써 백성을 다스리고, 법의 집행은 공정을 으뜸으로 하며 잔혹한 체형을 금지시켰다는 사실을 빼놓을 수 없다.

또 정관 연간에는 절약과 검소를 으뜸으로 하고 사치스런 생활을 삼가, 황실에서도 매나 개의 사육을 금하고 피서용 별궁의 수축을 중지하며 궁녀 3천명을 귀가시키거나 혹은 결혼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관 연간의 사회는 과거에 문란했던 도덕 풍기도 안정을 되찾았으므로 이 때의 정치를 역사상 <정관의 치>라 일컬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선정의 뒷면에는 방현령(房玄齡), 두여회(杜如晦)와 같은 어진 재상과 중신들의 보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종은 생일을 맞아 장손 무기에게 말하기를, “생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지만, 짐에게 있어서는 도리어 가슴 아픈 날이오. 짐이 비록 천자가 되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서 모시지 못하니 어찌 한이 되지 않겠소? 옛글에 이르기를 ‘슬프고 슬프다 부모님이시여 나를 낳으시기에 노고가 많으셨다’ 하였으니 어찌 부모님이 노고하신 날에 잔치를 벌여 즐길 수 있던 말 씀이오?” 하고 잔치를 금하라고 하였다.

또 어떤 해인이 황충(메뚜기)의 피해가 심하자 태종은 친히 상림원에 나아가 황충 몇 마리를 나뭇잎에 싸들고 축수하기를, “백성들이 곡식으로써 목숨을 보전하거늘 너희들이 먹으니 차라리 짐의 폐와 창자를 갉아먹어라” 하고 그 황충이를 삼키려 했다. 좌우 신하들이 깜짝 놀라, “황충은 악물입니다. 혹시 병이 될까 두렵습니다.”라고 간하였으나 태종은 듣지 않고 삼켜버렸다. 그 러자 그 후로 황충의 재해가 사라졌다 한다.